

제225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최

서구의회(의장 김종록)는 지난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심의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다. 2021년도 업무계획 청취 과정

에서 의원들은 교통·복지·문화 등 민생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주요사업들을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

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구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은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하였다.

【제225회 임시회 주요안건】

-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5분 자유발언



김진출 의원

서구의회 김진출 의원은 제22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했다. 14조원 이상

의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대구시와 적극 협력하여 행정적 지원 및 서대구역 주변 환경 개선, 도시재생 등에 역점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도시철도망이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서로 이어지고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교통중심지로서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고 서대구가 지역산업의 중추 역할을 함으로써 대구경북 신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염색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문제 해결과 도시철도는 서구중심가로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광 의원

서구의회 오세광 의원은 제22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대안에 대해 발언했다. 서구의 인구

가 2020년에 170,700명으로 전년 대비 4,577명(2.6%) 감소했으며 더 큰 문제는 인구의 자연감소보다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유출이 더 많다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의 ‘탈(脫)대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책대안으로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을 과감히 늘려야 하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와 환경조성이 시급하며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 찾아오는 서구, 머물고 싶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김종일 의원

서구의회 김종일 의원은 제22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구 구민의 염원인 도시철도 건설과 정주여건 조성에 대하여

발언했다. 김 의원은 서대구역세권을 첨단경제와 문화, 스마트교통과 환경이 잘 어우러진 “세계로 열린 미래경제도시 서대구”로 개발하고 풍부한 녹지와 교통, 금융, 문화, 인프라가 갖춰진 질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 “오고 싶은 서구, 살기 좋은 서구”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의무라며 부모, 영·유아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시설의 공공성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서대구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 동정



전체의원 간담회

서구의회는 2월 8일(월) 서구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회기운영방안,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철도 서구중심가 통과를 위한 서구의회의 역할과 제225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방안, 당면현안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질의하고 답변했다. 김종록 서구의회 의장은 “서구의회는 항상 구민과 함께하고 구민 소통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서구를 행복이 넘치는 선진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이 주최한 「2021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온라인 비대면 참여 서구의회 의장은 매일신문이 주최한 「2021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 2월 4일 각계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매일신문 사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등 9명은 오프라인 대면으로 참여했으며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경제계·교육계·학계인사 등 80여명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대구 서구의장은 기초의회 의장 중 연장자로서 대표인사와 새해 덕담을 했다.



대구 서구의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2월 17일 동참했다.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동참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챌린지로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기억하기 쉬운 숫자에 맞춰 '1단 멈춤·2쪽 저쪽·3초 동안·4고 예방'으로 표현하여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이다.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서구협의회 정기총회 참여

서구의회 의원은 2월 25일(목) 서구 구민운동장에서 국회의원, 구청장 등과 함께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서구협의회 정기총회 및 장학금 전달식, 회장 이·취임식에 참여했다. 이날 정기총회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협의회 회장으로 우남홍 전 부회장이 취임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의장 표창장도 함께 수여되었다.